

“농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줄이면 안된다”

여야,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에 공감

농어촌 특별선거구·고향투표제 도입 제기

획정위, 내달 11일 공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획정위는 23일 “어제 열린 2차 회의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면서 “우선 다음달 4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및 행정구역 변경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11일 4차 회의에서는 정당,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첫번째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해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전체 의석 수 증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권역별로 일정한 수의 비례대표를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인구수로 다시 배분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촌지역 인구수에 각각 10~30% 가중치를 부여한 뒤 시도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변경할 경우 농촌 지역 의석이 8석 주는 데 비해 가중치를 둔다면 농촌 의석은 3석 감소(10%), 1석 증가(20%), 6석 증가(30% 가중치)로 변동된다.

농촌 지역은 인구가 기존 아래라고 해도 선거구로 지정하지는 ‘농어촌 특별선거구 제도’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에 먼저 특별 선거구를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현재 결정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다소 현실적이지 않지만 ‘고향투표제’ 도입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비거주 선거인 등록제도’를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주민등록지와 등록지(본적), 출생지 중에서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주소와 본적의 복합형 등록선거인 제도를 도입하면 주민등록인구 12만명 이하인 농촌 지역구도 선거 인구 15만명의 독립

선거구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190만여명인데 비해 가족관계 등록인구는 485만여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주민등록인구가 1,233만여명이지만 가족관계 등록인구는 686만여명으로 훨씬 적다.

한편 획정위는 다음달 13일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3개 정당으로부터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또 향후 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선거구의 경계조정, 분구, 통합 예정 지역 등을 방문해 해당 지역의 의견도 직접 듣기로 했다. 특히, 획정위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달 안에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위로 넘겨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美 의원들 “아베, 위안부 사죄하라”

“日 교과서에 실어 교육해야”

미국 연방 의원들이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고 후대에 제대로 교육할 것을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은 이날 워싱턴 D.C.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미주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만찬에 참석해, 아베 정권의 전쟁범죄 부정과 역사 왜곡 시도를 비판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미 의원들의 이 같은 공개 촉구에는 아베 총리가 다음달 중순 70주년에 맞춰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일본 정부 관리들이 부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역사가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 이제는 위안부 얘기가 일본 교과서에도 실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2007년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는 위

안부 문제에 대해 똑똑하고 분명하게 사죄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도 “제2차 대전 중 한국 여성들에게 가해진 범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인권침해 범죄”라며 “그들이 고통받은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육을 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에디 버니스 존슨(민주·텍사스) 의원도 “처음에는 위안부에 대해 잘 몰랐으나 혼다 의원의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캐서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들 의원을 비롯해 로버트 매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과 톰 우달(공화·조지아) 하원의원 등 연방 상·하원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첫 행사 때는 11명의 연방 의원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한인 풀뿌리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석의원 숫자가 늘었다.

연합뉴스

밥쌀용 쌀 3만t 수입

31일 구매 입찰 실시

황주홍의원 “기습 통보” 질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할 밥쌀용 쌀 3만t에 대한 구매 입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가 낸 입찰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입찰하는 저유관세 할당물량(TRQ) 수입쌀은 밥쌀용 쌀 3만t, 가공용 쌀 1만1000t 등 총 4만1000t이다.

지난 5월 밥쌀용 쌀 1만t 입찰을 했으나 참여 업체 2곳과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됐다. 당시 유찰 물량인 중립종 1만t은 이번 입찰 물량에 포함됐다. 입찰 결과는 31일 이후 견본품 검사, 응찰가격 개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초에 나온다.

수입 쌀은 입찰에서 도입까지 보통 4~5개월이 걸린다. 이번 입찰에서 수입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입찰 물량이 들어온다.

한편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기습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강릉 영암 강진)에 따르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밥쌀용 쌀 3만톤을 수입하겠다고 통보했다. 황 의원은 “국회에 공고 하루 전 기습보고 하면서까지 쌀 수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쌀 수입은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주철현 여수시장이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수 명예시민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얼굴 형상을 새긴 감사패를 전달했다. <여수시청 제공>

“박람회 성공 지원 김무성 대표 감사해요”

주철현 여수시장, 얼굴 새긴 감사패 전달 ... 예산 지원 요청

주철현 여수시장의 국비확보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주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단독 면담하고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시장은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고, 김 대표도 이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여수시는 전했다.

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공로가 컸던 여수 명예시민인 김 대표에게 본인 얼굴 형상을 새긴 감사패와 함께 여수와 관련한 영상기록, 시민의 감사 인티뷰 내용이 담긴 영상앨범 등을 전

달했다.

여수시 박람회활용과 김병완 과장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한 힘을 기울이겠다”며 “그동안 여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인연을 맺은 여수계각층의 인사들과 깊은 유대관계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쓰지 않는 군용지 민·군 공용 휴양소로

전남도-31사단 합의

전남도와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전남의 쓰지 않는 군용지에 민·군 공용 휴양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남지사는 최근 관혁신 31사단장과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

전남도는 홍보와 민간 투자 유치에 맡고 31사단은 휴양소 건립 가능성을 판단해 부지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기부채납 후 사용수의 허가 방식으로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활용되지 않는 전남 군용지는 20곳이며 더 늘어난 전망이다. 대부분 해변 등 경관

이 빼어나 휴양소가 조성되면 벽오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권 사단장은 또 31사단 예하부대 명칭에 내자리 숫자나 지명을 쓰는 대신 부대가 있는 시·군의 호국인물 이름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와 권 사단장은 민·군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대명칭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권 사단장은 오는 9월 17일 개막하는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에 의장대, 군악대, 장병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 지사는 지원병력 수송과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윤장현 시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 이탈리아 방문 출국

윤장현 광주시장이 23일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 등을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이날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2015밀라노엑스포 내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홍보상장관 개막식(24일) 등에 참석한다.

윤 시장은 개막식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디자이너들과 면담을 갖고 광주시의 ‘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시장은 26일 2008년 광주비엔날레의 총감독인 오쿠이 엔위지가 총감독을 맡은 베니스 비엔날레를 둘러본 뒤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5 KWANGJU FANTASY4 DJ MUSIC FESTIVAL

2015. 7. 24 ~ 25(2일간) @ 광주상무 조각공원 옆 1만평 부지

올 여름, 영원히 기억될 그 이상의 DJ뮤직페스티벌이 광주로 온다

국내, 외 전문 DJ와 연예인 DJ, 다양한 퍼포먼스 등 판타지만의 새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20대~40대 층이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로 진행 됩니다. 에어 돔 영상 쇼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와 야외 메인 무대의 화려함으로 관람객 모두에게 판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광주 최대규모의 야외DJ뮤직 페스티벌이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DJ KOO



CHUNJA



COOL K

지상 최대의 DJ군단이 광주로 모였다!

LINE UP

DJ KOO(구준엽), 춘자, 바스코, 쿨K, FENNER, FERRY, 한민, 홀릭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짜릿한 DJ 뮤직 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을 흔든다!



DJ FENNER



DJ FERRY



HANMIN

대한민국 최고의 FESTIVAL이 광주에 모두 모였다!

17일간 펼쳐지는 330도 에어돔 영상쇼, 다양한 공연과 체험축제, DJ클럽88퍼마티아와수영장이 함께한다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짜릿한 한여름밤의 축제가 광주를 흔든다! 이제 마음껏 17일간의 자유를 판타지 축제와 함께 느껴보자-



vasco



HOLLIC



HANMIN

주최: 光州日報, 주관: INTERCOM/AMAC, 공연기획: 송림, P&EC: 행사운영, 지원: 송림, CM: 박진표(본지)

주소: 광주 차평동 1163-1 (상무 조각공원 옆) | 전화예약: 1899-4841 | www.fantasy4.co.kr

* 에어돔 DJ 클럽 플러티, 야외수영장 폐쇄 및 문의: DISCO | www.discountcoupon.co.kr